

전남 섬지역 수험생들 '수능 상륙작전'

**풍랑주의 예보에 소집일 하루전에 미리 물으로
올해 진도 조도고 등 8개 고교 183명이 원정길
선배들은 후배찾아 저녁 사주고 사기 복돋아 '훈훈'**

고 32명) ▲신안(도조고 53명·임자고 20명·안좌고 15명·의외고 7명) ▲진도(조도고 10명) ▲여수(여남고 8명) 등이다. 평생 한 번 뿐인 시험이라 수험생들의 육지행에 생업을 중단하고 동행하며 컨디션을 지켜주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지난 11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조도선착장 분위기는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물으로 가는 마지막 배를 기다리는 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눈엔 안쓰러움, 대견함, 격정 등이 뒤섞였다. 등직한 자식 어깨를 다독이려는가 하면, "한 번 안아보자 내 아들"하며 보듬는 아버지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없고 같은 학교 교사가 감독관이 될 수 없다"는 수능 규정 때문에 이날 육지로 나와야 했다. 수능을 이를 앞둔지만 섬 특성상 파도와 안개 등 기상 변화가 심해 날씨를 예측할 수 없어 예비소집일 하루 앞서 떠난 것이다.

진도 지역에는 13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내려진 상태다. 하염없이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배승

하(여·19·조도고고 3년) 양 어머니는 출발 소리를 알리는 배로 향하는 딸의 손을 꼭 잡아끌며 "잘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해. 사랑해"라며 다독였다. 배양 어머니는 배가 안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다가가 눈을 흘렸다. 하천호(19·조도고고 3년)군의 아버지는 "입맛 없어도 아침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품속에서 용돈을 꺼내 쥐어주고는 등을 쓰다듬었다.

이들 학생들은 진도읍 모텔에 짐을 풀고 13일 시험을 보러 간다. 매년 하루 앞서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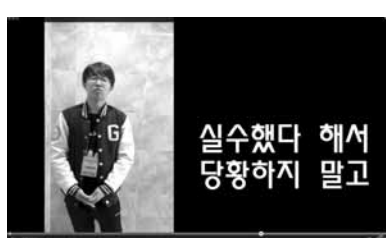
으로 오는 조도고 학생들 때문에 학교 출신 선배들은 후배들을 찾아 저녁을 대접하며 사기를 복돋아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조도고 학생들처럼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하루 전 물으로 나오는 섬 지역 고등학생들의 '수능 상륙작전'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 원정길'에 나선 섬지역 학생들은 전남 지역 8개 고교 183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완도(노화고 38명·금일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들이 며칠 묵든 상관없이 1인당 5만 원의 채류비만 지원하고 있다. 조도고처럼 2일간 숙박을 할 경우 초과되는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조도고 강종주(32)교사는 "고등학교 3년을 마무리하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미리 육지에 나와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자들이 평소 공부하는 장소가 아닌데도, 마지막 정리를 잘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후배들아! 수능 당일 이것만 명심해"

광주일고 졸업생 10명 노하우 전수 유튜브 화제

광주의 한 고등학교 출신 선배들이 고3 후배들에게 수능 시험 당일 노하우를 전하는 동영상 만들었다. 내용남(서울대), 한영안(고려대), 구태민(공군사관학교) 등 광주제일고 2014년(89회) 졸업생 10명이 수능을 앞둔 후배를 위해 노하우 전수자로 나섰다. 11일 유튜브(YouTube)에 오른 이 4분 길이의 영상은 페이스북(Facebook)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들은 광주제일고 학생회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수능 100일 전남 선배의 수능 대학을 염원하는 영상을 만든 바 있다. 올해는 후배를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능 2주일 전 전시회가 투합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수능 당일 노하우는 시험 전·시험 시간·시험 후로 나누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담았다. ◇시험 전=수험표와 신분증, 필기구는 의외로 소홀히 챙길 수 있는 준비물기에 수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한다. 특히 수험장에 시계가 따로 구비돼 있지 않으니 개인 책상에 올릴 시계를 가져가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험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의자와 책상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화장실은 여유있게 시험보기 20분 전에 가는 것이 좋다.

◇시험 시간=수험장에 입실하고 나서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지만 막상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면 긴장이 풀리게 된다. 너무 긴장을 풀지는 않되 모의고사를 본다는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 있는 과목이라도 도중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이리튼바 '땀방' 상태가 되게 마련이다. 답안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과감히 빨리 찍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 ◇쉬는 시간=선배들은 20분 가량의 쉬는 시간에 친구와 답을 맞춰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단언한다. 휴식 시간에는 그동안 정리했던 노트나 EBS 교재 등 수능특강 해석본을 보는 것이 현명하다. 영상 편집을 맡았던 김성현(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1년)씨는 "아침, 점심은 기름진 고기 반찬 등을 빼고 평소 식단대로 찌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능은 넘어야 할 수많은 산 봉우리 중 하나이니가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지방검찰청과 조선대 법과연구원이 주최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12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내 모의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아동·장애인 성폭력범 강력 처벌

광주지검 심포지엄…벌금형 줄어들 단 1건 그쳐

검찰이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면서 약식 기소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심포지엄은 2011년 70.5%, 2012년 83.5%, 2013년 93.2%에 이어 올해 10월까지 98.6%로 높아졌다. 반면, 법원에 벌금형을 요구하는 약식 기소의 경우 올해 전체 기소 사례 72건 중 1건에 그쳤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 성폭력 피해방지단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대책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분석,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넌 것으로 해석됐다. 광주지검 관할 지역의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구공판 기소율도 지난 2011년 70.5%, 2012년 83.5%, 2013년 93.2%에 이어 올해 10월까지 98.6%로 높아졌다. 반면, 법원에 벌금형을 요구하는 약식 기소의 경우 올해 전체 기소 사례 72건 중 1건에 그쳤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 성폭력 피해방지단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대책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분석,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사차량 진입 등 방해 민노총 노조원 2명 영장

광주남부경찰청은 12일 민노총 소속 노조원을 건설현장에 고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의 공사차량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민노총 건설 노조 소속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노조원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8시 광주시 남구 임암동 호천1지구 A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입구에 자신들이 타고 온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해놓고 '노동자다운 삶 쟁취하자'라고 적힌 현수막

을 든 채 55분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시공사가 해당 공사현장에 민노총 노조원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자 항의집회를 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등 2명이 지난 2011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를 해온데다, 건설장비(덤프트럭·굴삭기 등) 배차권을 요구해왔다는 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최근의 명정선물 의혹과 관련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노 구청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노 구청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노 구청장 측근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조사에 착수, 노 구청장 집행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노 구청장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자원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 오는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성 집 침입해도 두주...체구 때문에 들린 이웃집 남자

○...옆집에 홀로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하려다 미세에 그만 20대 남성이 자신의 체구 때문에 경찰에 들림. ○...12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장모(27)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30분경 광주시 광안3 신항동 5빌라에서 사는 이모(여·38)씨의 원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 잠에서 깬 이씨의 인가침에 놀라 달아

난 들림. ○...경찰은 절도미수범이 옆집에 사는 남성의 체구(키 172cm·몸무게 90kg)와 비슷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창문을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이 씨가) 잠에서 깨면서 내 얼굴을 알아차린 줄 알았고 경찰이 찾아오자 자백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12407	1	광산구 송지동 381-5 786㎡ [일부부는전으로 이용중,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13층)은매각 제외]	대	74,670,000 74,670,000	매각외건물위해법정지상권설정여지
2014타경 14083	1	나주시 교통동 76-3 456㎡ [일부도시계획시설 도로지적, 인입지외지적경계명명, 남측일부 타인소유권존중유무정]	전	128,592,000 128,592,000	매각대상인타인소유권존중유무정
2014타경 14236	1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870-2 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01,624,000 201,624,000	인입지외지적경계 불분명
2014타경 14610	1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870-2 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44,518,320 44,518,320	인입지외지적경계 불분명
2014타경 14786	1	서구 쌍촌동 산223-1 361㎡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임야	4,160,754,000 4,160,754,000	3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선정, 공유자사건수권등제한
2014타경 16492	1	정선군 삼계면 수석리 462-6 2274㎡	답	40,932,000 40,9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2087	1	동구 대인동 309-21 150.7㎡ [공공주택용]	대	140,472,640 140,472,640	일괄매각, 일부타지상 [309-2]에소유권, 목책2공유자권면제
2014타경 15505	1	영광군 영산면 아월리 47-13 3238㎡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76,705,100 76,705,10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제시외건물소재지상권설정, 제시외건물소재지상권설정

2.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법원합당

3. 입찰경매일 : 2014. 12. 5.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법원합당

5. 매각방법

6. 매각허가 및 담보권부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9. 기타

2.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법원합당

3. 입찰경매일 : 2014. 12. 5.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법원합당

5. 매각방법

6. 매각허가 및 담보권부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9. 기타